

### 중국 고대에 대한 상상 : 고대의 고대, 현대의 고대

김병준(서울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머리말</li> <li>2. 현대의 고대</li> <li>3. 고대의 고대</li> <li>4. 맺음말</li> </ol> |
|--|

#### 1. 머리말

학회로부터 <중국사 속의 고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받았다. 전체 취지를 보니, <고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사에서의 고대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하므로 각 지역에서의 고대 개념을 비교해보자고 한다. 마치 타 지역에서의 고대 개념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사에서의 고대에 대해 학자간의 견해차는 한국사만큼이나 크다. 중국사에서의 고대 역시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이참에 중국사에서도 <고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다시 던져보아야 한다.

#### 2. 현대의 고대

엄밀하게 말해 ‘古代’라는 단어는 ‘古’와 동일하지 않다. ‘古’는 ‘옛’이라는 뜻이다. 이 글자는 ‘今’이라는 글자와 짝한다. ‘古’는 ‘今’ 이전의 시간 전체를 가리킨다. ‘古’와 ‘今’ 사이에는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부분이 없다. 만약 그 긴 시간인 ‘古’를 구분해야 한다면, ‘太古’ ‘上古’<sup>1)</sup> ‘近古’<sup>2)</sup>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한편 ‘古代’라는 말은 ‘古’와 ‘代’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代’라는 말은 ‘바뀌다’ ‘교체하다’ ‘일정한 기간’이라는 뜻을 갖는다. 즉 ‘고대’란 ‘今’ 이전의 시간 전체인 ‘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今’ 이전의 시간 중 어느 일부를 지칭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뀐다는 말도 포함한다. 따라서 ‘고대’와 ‘今’(혹은 ‘今代’)과의 사이에는 또 다른 일정한 기간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중세’ ‘근세’ ‘근대’ 라는

1) 『사기』 권 진시황본기 “是以君子為國，觀之上古，驗之當世，參以人事，察盛衰之理，審權勢之宜，去就有序，變化有時，故曠日長久而社稷安矣。”  
 2) 『사기』 권 진시황본기 “秦并海內，兼諸侯，南面稱帝，以養四海，天下之士斐然鄉風，若是者何也？曰：近古之無王者久矣。”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고대’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미묘한 의미가 드러난다. ‘고대’라는 말이 ‘고’가 지칭한 ‘수’ 이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지칭하게 됨으로써, ‘고’가 본래 갖고 있는 ‘옛’이라는 뜻에 ‘아주 오래된’이라는 뜻이 덧붙여졌던 것이다.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고’가 갖는 시간적 의미가 축소되고 ‘오래된’이라는 가치 판단이 담긴 의미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古’가 ‘수’에 곧바로 대응하여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고대’는 ‘수’ 사이에 다른 시기가 설정된다는 것도 그 함의가 각별하다. 아주 오래된 ‘고대’에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단계별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고대’는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전의 상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시간적 의미로서의 ‘古’가 무엇인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의 성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서 비교적 쉽게 객관적 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아주 오래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고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까지를 ‘아주 오래된’ 시기,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 ‘오래된’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 인간의 과거는 늘 변화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또한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만약 변화가 발생하는 여러 시점만을 찾는 것이라면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외견상 큰 변화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제국의 성립, 제국의 멸망과 분열, 동서의 만남 등이 이에 해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3단계 혹은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3단계라면 ‘지금’이라는 시점을 제외하고 ‘古’를 2단계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찾으라는 말과 같다. 여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단계 혹은 2단계를 추가하여 4단계, 5단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2개 혹은 3개의 변화를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역사학자에게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수’ 이전의 시간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해보려는 욕구는 어느 누구보다 크다. 본질을 꿰뚫고 싶지만 역사 속에서 쉽게 그 본질을 찾아내기 어려운 역사학자는 역사철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역사철학에서 제시한 선형적 이론을 변화의 본질이라고 가정하고 난 뒤, 그 이론에 맞는 사실을 역사에서 찾아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해주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철학이 제시하는 5단계 발전단계론이다. 이들은 역사의 본질적인 변화의 요소를 생산양식이라고 보고, 원시공산 사회,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

산주의 사회의 단계로 나누었다.<sup>3)</sup> 그리고 노예제 사회를 고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끌어왔다. 맞지 않더라도 억지로 끌어 맞췄다. 노예제 사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예가 많았다는 사실을 끌어와야 했지만 이를 사료로 증명하기는 어려웠다. 다시 노예가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노예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갈리기도 했다. 역사철학이 제시한 이론이 일치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론을 수정했다.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그러한 사례이다.

가령 갑골문에 보이는 사람 희생인 순장을 그 노예로 보아 상대부터 노예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 아니다. 『모르간의 ‘고대사회’의 요약』에서는 사람 희생이 야만기인 제2기에 이미 출현했고 노예는 야만기 제3기에 출현했다.... 노예사회는 물론 노예가 있지만 단지 노예가 있다는 것이 곧 노예사회라는 것과 다르다. 예컨대 원시사회 말기에 노예가 있고 봉건사회와 자본주의사회 역시 노예가 있으니 이처럼 노예가 있다는 것이 곧 노예사회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한다.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노예제에 대한 이론적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예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시 마르크스주의에서의 노예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전형적 노예제로 구분되며, 양자의 차이는 전자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존재하지 않고 후자에서는 무한정토지가 사유재산화된다는 데에 있다고 전환된다. 다시금 토지 국유제와 토지 사유제의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이 논쟁은 주대의 井田制를 맹자가 이상화한 유토피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시행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농촌공동체로서의 아시아적 표현양식인지로 이어졌고, 다시 국유제와 사유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른바 역사적 법칙이라는 것이 주로 서구사회의 역사적 전개의 실태로부터 추상된 것으로서 그 법칙이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그 이론에서 떠나지도 않는다. 잘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여하튼 선형적인 이론을 전제로 하고 역사적 사실을 찾아 그 이론을 증명하거나 약간 수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선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대’에 대한 시기 설정은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철학에서의 발전단계론 외에도 공동체이론에 입각해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 그것을 이민족 관계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선형적인

3) ‘고대’라는 말이 중국의 전통시대 전적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극히 일부 쓰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다.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고대’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을까?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본에서대략 1920년대말에서 1930년대초 중국과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사상, 사회사상으로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대구분이 논의되었던 때부터라고 보인다. 1930년대 초기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현실의 중국사회가 어떤 단계의 사회이기에 중국사회의 진로설정이 혼미한 것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 해답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 이해에서 찾고자 했다. 세계사적인 보편적 법칙으로서 사회구성의 단계적 구분을 중국사에 적용하겠다는 중국사회사 논전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노예제사회와 봉건사회가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거쳐 왔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전제 하에 그 각각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민두기 편, 『중국사시대구분론』 창작과 비평사, 1984, p.8.

시대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역사적 사실이 선택되었다. 선택적인 ‘고대’의 설정이라는 말은 곧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고대’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상상했다는 것과 같다.

이상 ‘고대’에 대한 현대인의 상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현대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떤 단계인지, 예부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했다. 그 작업은 선험적 상상의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그러한 상상의 저변에는 ‘발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 근거에는 지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한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을 인식하고, 또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 단계에 놓여있는 현재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필연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세는 고대보다 나아가야 하고, 근대는 중세보다 나아가야 했다. 이러한 발전 도식 하에서 ‘아주 오래된’ 고대는 자연히 매우 낙후된 단계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대는 오래된 생산도구와 생산관계, 생산양식, 즉 노예제로 특징지어져야 했던 것이다. 다시 토지 소유제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고대’에 대한 성격 규정은 결과적으로 역사 연구에 일정한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노예의 존재 여부, 생산 도구에 대한 분석, 토지 소유의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문헌 자료로만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서 70년대 이후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최근 간독의 대량 출토로 인해 그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가령 기원전 79년 시기 200명 이상의 노비를 조직하여 대규모 농경과 목축을 경영한 대토지 소유자의 경영 문서인 <奴婢稟食簿>가 확인되었다. 노예가 확보되면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노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것처럼 이 문서에서는 다수의 노비를 동원하여 수익성 높은 牧馬와 농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노예에 의한 대토지 경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가의 노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가 하면 牧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은 서북 또는 북방 변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농민의 자립재생산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지역적 특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출토자료에 의하면 전한 시기 빈농의 광범위한 존재도 확인된다. 이들이 종자와 田租 및 인두세를 포함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이 빈농들은 생계를 위하여 또는 유희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노동자 傭人이 되거나 부분적 소작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예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소농민이었다면 대토지소유자들 역시 고가의 노비 대신 빈농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대 주 생산 기반인 농경의 중심은 의연히 편호제민 자작농과 전호에 있었다고 해야 한다. 결국 노예가 수공업과 광업은 물론 농경과 목축에도 대거 역사된 사회였지만 동시에 대규모 노비를 소유한 노예주도 적지 않았던 사회였다. 토지 소유의 문제 역시 간독자료의 대량 출토로 말미암아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다. 일찍이 수호지진간이 발견되면서 전국말 秦國에서의 수전제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장가산한간 이년울령이 발견되면서 국가에 의한 수전제의 존재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수전제는 한초에 들어오면서 점차 형해화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만약 기존의 시대구분에 의한 ‘고대’의 상상 기준에 따르면, 대토지소유 노예주의 존재와 노예에 의한 대토지 경영이 이루어졌으므로 한대를 노예제로 보겠지만, 대다수 편호제민의 존재는 이 시기를 결코 노예제로 볼 수 없게 한다. 또 토지소유제의 기준으로 따지면 秦末과 한초를 기준으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진대 율령과 행정문서에 보이는 관노비의 광범위한 존재는 전국시기를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시기로 규정할 수도 없게 한다.

요컨대 새로운 자료를 통해 ‘고대’의 실상이 밝혀질수록 노예 및 토지소유라는 단일한 기준만으로는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역사철학에서 제시한 선형적 기준에 따른 ‘고대’에 대한 상상은 점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古’의 탐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고대의 고대

고대인들도 현대인과 똑같이 고대를 상상했다. 고대라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란 혹은 의도적 파괴로 인해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미 공자가 하대와 은대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진시황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史書가 모두 불태워진 이후는 더욱 고대를 설명해줄 자료가 없었다. 그렇지만 고대를 상상한 까닭은 단지 자료가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고대’를 설정하지 안 되는 외부적 이유가 있었다. 물론 고대인들은 ‘고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고’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만 그 ‘고’는 시간적 의미의 고와 이념적 의미의 고로 구분된다.

고대인들도 마치 20세기초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래서 ‘今’ 현재의 모습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今’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대’를 상상하는 방식이 달랐다. ‘금’을 긍정하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을 발전의 시각에서 보고자 했다. 지나간 과거를 ‘오래된’ 그리고 ‘미숙한’ 단계로 설정하고 그것이 변화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해온 ‘금’은 다시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할 것이라 믿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고대를 상상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이 과거부터 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다가올 미래도 더욱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긍정적 미래를 위해서는 ‘금’과 ‘고’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부정적인 ‘금’은 무언가에 의해 바뀌어야 했는데, 그 기준을 ‘고’에서 찾았던 것이다. 원칙으로서의 ‘고’, 이념으로서의 ‘고’를 설정하고 그것이 ‘금’에 들어서면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양자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진시황 34년 분서갱유 기록이다.

始皇置酒咸陽宮，博士七十人前為壽。①仆射周青臣進頌曰：「他時秦地不過千里，賴陛下神靈明聖，平定海內，放逐蠻夷，日月所照，莫不賓服。以諸侯為郡縣，人人自安樂，無戰爭之患，傳之萬世。自上<sup>古</sup>不及陛下威德。」始皇悅。②博士齊人淳于越進曰：「臣聞殷周之王千餘歲，封子弟功臣，自為枝輔。今陛下有海內，而子弟為匹夫，卒有田常、六卿之臣，無輔拂，何以相救哉？事不師<sup>古</sup>而能長久者，非所聞也。今青臣又面諛以重陛下之過，非忠臣。」始皇下其議。③丞相李斯曰：「五帝不相復，三代之相襲，各以治，非其相反，時變異也。今陛下創大業，建萬世之功，固非愚儒所知。且越言乃三代之事，何足法也？異時諸侯并爭，厚招游學。今天下已定，法令出一，百姓當家則力農工，士則學習法令辟禁。今諸生不師今而學<sup>古</sup>，以非當世，惑亂黔首。④丞相臣斯昧死言：古者天下散亂，莫之能一，是以諸侯并作，語皆道<sup>古</sup>以害今，飾虛言以亂實，人善其所私學，以非上之所建立。今皇帝并有天下，別黑白而定一尊。私學而相與非法教，人聞令下，則各以其學議之，入則心非，出則巷議，夸主以為名，異取以為高，率群下以造謗。如此弗禁，則主勢降乎上，黨與成乎下。禁之便。臣請史官非秦記皆燒之。非博士官所職，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悉詣守、尉雜燒之。有敢偶語詩書者棄市。以<sup>古</sup>非今者族。吏見知不舉者與同罪。令下三十日不燒，黥為城旦。所不去者，醫藥卜筮種樹之書。若欲有學法令，以吏為師。」制曰：「可。」

이 기록에는 ‘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런데 ‘고’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둘로 나뉜다. ①은 주청신이 상주한 내용으로서, 上古 이래 진시황의 공적에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의 上古는 시간적 의미의 ‘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후 논의의 전개를 따라가보면 주청신의 ‘상고’는 ④이사의 ‘고’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반면 ②는 박사 순우월이 주청신을 아첨꾼이라 비난하며 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은주시대에는 자제와 공신을 분봉하여 울타리로 삼았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古를 잘 본받아야(師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따라서 순우월은 ‘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전제 하에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고’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념적 ‘고’가 ‘금’에 들어와 잘못 되었으니, 그 ‘고’를 다시 본받아 ‘금’을 고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③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순우월의 말을 듣고 난 이사가 그를 반박하는 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지금 순우월을 포함한 儒生이 ‘금’을 본받지 않고 ‘고’를 본받는다(不師今而學古)고 한 것은 ‘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념적 ‘고’에 대한 믿음을 지적한 것이다. ④에 두 가지 ‘고’가 섞여서 나온다. 유생들의 ‘道古以害’ ‘以古非今’과 자신이 생각하는 ‘고’가 그것이다. 이사는 ‘고’를 시간적 의미의 ‘고’로 보고 그 ‘고’에는 천하가 산란하여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제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古者天下散亂，莫之能一，是以諸侯并作) ②③은 ‘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④는 ‘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고, 이에 근거하여 ②③은 ‘고’를 본받아야 할 이념적 원칙으로, ①④는 ‘고’를 오래되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전국시대 제자백가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범가류로 구분되는 『한비자』에서는 ①④의 개념으로 ‘고’가 사용되었던 반면, 『논어』를 비롯한 유가류에서는 ‘고’가 ②③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동일한 하대와 은대를 대상으로 『한비자』에서는 桀과 紂가 포악하고 어지럽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

논어』에서는 禹와 湯의 덕정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대’를 묘사했던 것이 아니다. 각자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고대’를 상상하고 거기에 맞는 역사적 사실을 끌어와 그 근거로 삼았다. 현대인의 고대 상상에서는 역사철학이 그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고대인의 고대 상상에서도 유가와 법가 등 이른바 ‘고대의 역사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 의해 그 근거가 선형적으로 제시되었다.<sup>4)</sup>

#### 4. 맺음말

현대인이나 고대인 모두 시간적 의미의 ‘고’를 벗어나 ‘고대’를 설정하고 그것에 가치 판단이 담긴 의미를 부여해 왔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은 ‘금’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하에서는 아주 먼 ‘고대’로부터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금’에 이르는 단계를 설정해야 했다. 그래야 다가올 미래도 발전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자연히 그 ‘고’는 오래되고 미숙한 단계여야 했다. 반면 ‘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하에서는 이것과 다른 방식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밝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을 ‘고’로부터의 지속적인 연장선상에 두어서는 안 되었다. 양자의 단절이 필요했고, 그 ‘고’를 ‘금’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설정해야 미래가 긍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선형적 기준에 의해서 ‘고대’를 상상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현대에서는 역사철학이, 고대에서는 유가나 법가와 같은 자들에 의해 선형적으로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에 근거하여 그 기

4)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의 역사인식은 순환적 인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오덕종시설을 든다. 오덕종시설은 자연의 木火土金水 오행이 운행되는 것에 따라 왕조도 그에 맞는 德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외견상 그 덕이 순환한다는 것이라서 역사의 순환을 의식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여씨춘추』에 인용된 추연의 오덕종시설은 과거의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오행에 맞추어 설명한 뒤, 앞으로 어떤 오행의 덕을 갖춘 왕조가 도래할 것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즉 “黃帝의 시기에 土氣가 승하여 황색을 숭상하고 그의 일은 土를 본보기로 했으며, 우임금 시기에 木氣가 승하여 청색을 숭상하고 그의 일은 木을 본보기로 했고, 탕임금 시기에는 金氣가 승하여 백색을 숭상하고 그의 일은 金을 본보기로 했고, 문왕의 시기에는 火氣가 승하여 적색을 숭상하고 그의 일은 火를 본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쇠망했으니 앞으로 주왕조의 火를 대신할 것은 水氣일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 먼저 水氣가 승할 것을 보여줄 것이다. 水氣가 왔는데 알지 못하면 토덕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듯이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주왕조 이후 수덕을 갖춘 왕조가 도래할 것이며,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토덕으로 넘어간다는 것일 뿐 왕조의 도래를 하늘이 미리 상서로서 알려준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또한 사마천의 “太史公曰：夏之政忠。忠之敝，小人以野，故殷人承之以敬。敬之敝，小人以鬼，故周人承之以文。文之敝，小人以僇，故救僇莫若以忠。三王之道若循環，終而復始。周秦之間，可謂文敝矣。秦政不改，反酷刑法，豈不繆乎？故漢興，承敝易變，使人不倦，得天統矣。朝以十月。車服黃屋左纁。葬長陵。”라는 말도 자주 그 근거로 인용된다. 하지만 이는 역사가 그렇게 순환한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을 政의 원리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일 뿐이다. 하의 원리였던 忠의 폐단은 野이라서 은에서는 敬으로 이를 극복했고, 은의 원리였던 敬의 폐단은 鬼라서 주에서는 이를 文으로 극복했고, 다시 주의 원리였던 文의 폐단은 僇이라서 다음 왕조는 忠으로 이를 극복해야 했다는 내용이다.

준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선택되었다. 자연히 입장이 다른 자들은 동일한 ‘고대’를 달리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시간적 의미의 ‘고’를 가치 판단이 개입된 이념적인 ‘고대’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유효하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바뀐다. 시간적 의미의 ‘고’에는 이러한 변화를 담을 수 없다. 따라서 ‘고’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구분해서 ‘고대’와 그에 이어지는 시대격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느냐이다. 선험적인 ‘고대’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그 시대의 경향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작업은 오히려 더 어려울지 모른다. 자료가 부족한 ‘오래된’ 시기라서 적지 않은 부분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사의 실제와 어긋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학에서의 ‘고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것을 종합하는 상상이어야 한다.

『중국사 시대구분론』이라는 책의 도론에서 민두기는 “시대 구분은 역사발전의 단계를 구체지음으로써 역사발전의 체계적 인식을 갖기 위한 설명기준이다. 이 시대구분이 논자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구분의 기준이 다르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해도 그것은 다름으로써 끝나서는 안된다. 궁극적인 일치를 전제로 한 차이여야 하며 그 차이는 저마다 궁극적인 일치를 위하여 정확한 논리와 역사사실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시대구분이 궁극적인 일치를 전제하지 않고 논리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학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첫 문단을 시작했다.

이를 현대인의 ‘고대’ 상상에 대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고대인의 바람은 사마천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사기』 백이열전에서 사마천은 공자의 선험적 도덕적 판단을 비판했다. 요순의 선양이 갖는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그것과 맞지 않는 사실의 존재를 지적했고, 백이의 仁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망의 마음을 逸詩에서 찾았으며, 공자의 도덕과 인의를 존중하나 그것이 더 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귀납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sup>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상상도 역사철학에 의한 선험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5) 영어의 ‘ancient’라는 말도 ‘고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즉 ‘ancient’라는 용어 안에 무언가의 가치 판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적 의미로서의 ‘earl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중국고대사 잡지인 Early China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6) 김병준, 네이버 열린연단 동아시아 문명의 정전 「사마천 <사기>」 강연 원고.

[https://openlectures.naver.com/text\\_viewer?module\\_id=1017&contents\\_id=143580#nafullscreen](https://openlectures.naver.com/text_viewer?module_id=1017&contents_id=143580#nafullscreen)